

인문사회 영재를 위한 공교육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신 의 주

건국대학교

진 석 언

건국대학교

본 연구는 공교육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문사회 영재를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들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확인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우선, 인문사회 영재를 대상으로 장래 희망을 조사한 결과, 56%의 학생들이 언어능력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면담 및 문서 조사를 통해 살펴본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는 차이가 있었다. K중학교의 인문사회 영재와 수과학 영재와의 심층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수과학 영재가 인문사회 영재에 비해 진로교육 프로그램에의 참여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학교 밖의 공교육 관련 기관에서 실시되는 진로교육 관련 활동에의 참여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 관련 활동 유형으로는 공통적으로 ‘직업실습’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율로 선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인문사회 영재, 진로 교육 프로그램

I. 서 론

오늘날 우리사회는 저성장, 청년 실업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는 책임은 점차 각 분야에서 직업인으로 활동할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자들이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중 하나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도와주는 일일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와 직업세계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합리적으로 잘 선택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중학교 시기는 본격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로, 학생들은 이 시기에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신운호, 오만록, 2005). 이러한 시대적, 시기적 필요성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는 진로탐색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서의 자유학기

교신저자: 진석언(jins@konkuk.co.kr)

제가 일부학교에서 시범학교 운영 등의 형태로 도입되었고, 2016년에는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된다. 자유학기제는 다양한 분야의 영재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서도 유연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재의 교육에서 실현하기 어려웠던 영재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로 탐색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진로교육은 영재학생들의 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영재 학생이 자신의 재능 영역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재능 계발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시기에 진로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자신의 재능 영역과 관련된 흥미를 상실하고 영재성 계발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수확분야 영재들보다 인문사회 영역 영재들을 고려한 해당영역과 관련된 진로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영재성 계발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가 영재들을 위한 진로교육, 특히 인문사회 영재들을 위한 진로 교육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인문사회 영재의 육성이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문사회 영재교육에 대한 투자가 다른 분야의 영재교육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영재성을 보이는 학생이 발견되더라도 이들을 위한 영재교육 과정이나 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분야별 영재교육 대상자 비율을 살펴보면(서예원, 이동화, 문대진, 문미연, 2015), 영재교육 대상자 전체 110,054명 중 수학, 과학, 수과학 분야의 영재교육 대상자 수가 전체 분야의 81.2%이고, 인문사회 분야는 3.5%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인문사회분야의 영재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부족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문사회 영재들이 장차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핵심 인재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의 영재교육의 구상과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미래 사회에 대한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문사회 영재들을 위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검토해 보고, 인문사회 영재들이 현행 진로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인문사회 영재 학습자들의 진로 희망은 무엇인가?

둘째, 인문사회 영재 학습자를 위해 공교육이 제공하고 있는 진로관련 프로그램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인문사회영재 학습자들이 현재 공교육의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II. 인문사회영재와 진로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1. 인문사회 영재

가. 인문사회 영재의 정의

‘인문사회 영재’를 개념화 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영재’의 개념화를 거치지 않을 수 없

다. 기본적으로 영재란 개념은 사회적 구성체다(Ford, 2003). 영재란 그 사회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재능에 대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시대에 따라서, 그 사회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조금씩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Clark, 2008). 인문사회분야의 재능은 이 사회에서 매우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고, 그러한 재능을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해 인문사회 영재 교육에 대해 연구하여 그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인문사회영재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자 할 때, 영역 특수성과 영역 일반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영역 일반적 관점은 인문사회적 능력인 언어 능력이 인문사회 분야의 영재뿐 아니라 모든 영재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보는 입장이다(전명남, 신수정, 강현석, 조철기, 2008; 모경환, 박정서, 안보형, 2014)는 사회과 영재와 일반적인 영재교육의 공통적 특성은 창의력이나 문제해결력 등과 같은 고차사고력과 개념 및 일반화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Gagne(1991)는 영재성을 선천적인 능력으로 간주한다. Gagne(1991)는 선천적으로 타고났거나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를 영재성으로 보았다. 그는 영재성은 선천적이고 영역일반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인문사회 영재라는 것은 없으며 일반적 재능이 인문사회 분야에서 연습과 훈련을 통해 발현된 것으로 해석하게 한다. 즉 일반 영재가 문, 사, 철의 인문사회 분야에서 재능을 보일 때 인문사회 영재라고 하는 것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인문사회 영재는 없으며 일반 영재만 존재한다는 것이다(김미숙, 전경란, 2008).

영역 특수적 관점에서는 선천적으로 특별한 영역에서 뛰어난 잠재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인문사회 영재도 존재할 것이다(송인섭 외, 2008). 인문사회 영재는 고등사고 능력을 지닌 영재이면서 동시에 문학, 사회, 철학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며, 인문학적 사고 즉 자신,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통합적, 융합적 사고를 하며, 창의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를 말한다(송인섭 외, 2008) 인문사회 영재성은 인간으로서의 자아성찰과 자신을 둘러싼 타인과 사회 문제에 대해 언어, 철학, 문학, 역사, 사회의 학문적 영역에서 통찰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이경숙, 2009). 인문사회 영재는 Gardner(1983)의 다중지능이론으로 볼 때 언어적 지능, 개인 내적 지능, 대인관계 지능, 실존 지능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자로, 미래사회를 통찰하고 창의적이며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훈련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김한영 외, 2008). 윤경미, 유순화(200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문사회 영재는 음악지능, 언어지능, 대인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문사회영재는 과학영재,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언어지능과 음악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lark(2008)는 ‘언어와 정보, 사회과학의 구조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영재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영역 특수적 관점에서 보는 ‘인문사회영재’의 정의와 같다(송인섭 외, 2008).

본 연구에서는 인문사회영재를 ‘고등사고능력을 갖고 있고, 언어과와 사회과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내리고자 한다.

나. 인문사회 영재의 특징

김미숙, 전경란(2008)은 인문사회 영재는 어휘력, 문예창작, 통번역, 토론, 자기성찰 등의 특수 분야에서 나타나는 창의적인 성취와 이를 위한 전문 지식과 특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전명남 외(2008)는 언어를 사용하여 뛰어난 창의적인 표현을 하거나, 사회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인문사회 영재의 재능으로 보았다. 이명자(2013)는 인문사회 영재의 재능은 인문, 사회, 철학과 관련성이 깊고, 타인에 대한 이해, 자기 성찰, 사회적 민감성 등이 높으며, 높은 언어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정보와 사회과학의 구조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과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옥현진, 고진아(2015)는 초등 인문사회 영역의 영재성은 탁월한 언어능력,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지적 호기심, 그리고 한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통제, 격려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한 여러 정의적 속성들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인문사회 영재의 특성은 인문사회 분야의 저명인사나 위인들의 어린 시절 특성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저명인사 중에서 인문사회 영재로 분류될 수 있는 정치가들은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며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하였고, 자신의 분야에서 문화적 매체 역할을 하였다. 평론가, 역사가, 사회학자들은 다양한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일을 즐겼고, 조속하고 민감했으며 집중력이 강하였다. 따라서 인문사회 영재는 우수한 의사소통 기술과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열린 사고를 하며, 도덕적이고 민감하여 집중력이 뛰어나고, 관련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이 많음을 알 수 있다(이명자, 2013).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인문사회 영재들은 어휘력과 표현력이 우수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심 및 자기 성찰력을 갖고 있으며, 사회 문제에 민감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인문사회 분야의 진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영재의 진로 교육

영재의 지적, 정서적 특성은 일반학생들과 차이가 발견되기에 이들에 대한 진로 교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영재들의 진로 교육은 영재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Kerr(1981)는 영재들의 다재다능성을 이야기하였고, Green(2002)은 다재다능함, 성차, 완벽주의, 조속함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은 일반 학생과 다른 영재들의 인지적·정의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정화, 류성림(2013)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에서 초등학교 영재들이 일반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데 비해 목적성과 독립성에서는 일반학생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영재의 진로지도를 함에 있어 그들의 정서적 성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미순(2012)은 영재들의 완벽주의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영재들의 완벽주의는 일의 완결성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하지만, 완벽주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완벽주의는 지연,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전을 주저함, 실패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시도하지 않으려 함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Davis & Rimm, 2004). 따라서 영재의 진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는 그들의 ‘완벽주의’와 같은 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문사회영재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고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면담조사와 설문조사가 실시된 K중학교는 아직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기존의 교육과정 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학교이다.

1. 면담 조사

면담 대상은 I광역시 소재 K중학교 인문사회영재 4명, 수과학 영재 3명, 진로 교사 1명이었다. 면담조사에 참여한 인문사회 영재 학생은 1학년 박일문, 3학년 한이문, 이인문, 김하문(이상 가명) 학생이었다. 박일문 학생은 작가가 꿈이고, 한이문 학생은 진로에 대해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했지만 본인이 외국어에 재능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 다국적 기업에 취직하여 해외 사업부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지원하였다. 이인문 학생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의 꿈을 갖고 있으며, 국제고등학교에 지원하였고, 진로에 대해 끊임없이 주변의 어른들과 상담하고 고민하는 학생이다. 김하문 학생은 언어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학생회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학생이다.

면담에 참여한 수과학 영재학생은 1학년 김수한 학생, 3학년 이수찬 학생, 유수민 학생(3명 모두 가명)이었다. 1학년 김수한 학생은 생물학자가 꿈으로 생명공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고, 3학년 이수찬 학생은 게임 개발자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꿈이고 컴퓨터 공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면담 당시 과학고 진학을 목표로 진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유수민 학생은 전자공학자가 꿈이고, 전국 청소년 과학 탐구대회에서 우수한 학생이며, 평소에 약간 독특한 말을 할 때도 있고, 모든 사물을 볼 때 관찰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이다. 이 학생도 면담 당시에는 과학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심층 면담과 설문 조사는 2015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인문사회 영재 4명, 수과학 영재 3명과는 3~4회의 심층면담이 실시되었고, 진로 담당 교사 1명과는 총 3회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 시간은 매회 20~4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을 진행할 때 되도록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rapport 형성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진행하여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문사회 영재학생들이 그들의 진로와 공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고,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면담 초반부에는 학교생활이나 취미활동 등의 대화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학생의 꿈이 무엇인지 관심 있는

활동이나 분야는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학생들이 학교 및 교육청 등에서 경험한 진로 관련 활동에 대해 질문하였다.

영재들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분석하기 위해 면담에서 초반에 사용한 주요 질문은 “당신의 꿈이 무엇이고, 그러한 꿈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였다. 그 다음 사용한 주요 질문은 “당신이 진로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참여한 주요 활동은 무엇이었나요?”였다. 세 번째 면담에서는 “당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의 공교육 기관에서 주최하는 활동 중에 어떠한 것을 알고 있나요?”, “진로와 관련하여 학교 이외의 공교육 기관에서 주최한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참여했다면 어떠한 프로그램이었나요?” 그리고 네 번째 면담에서 사용한 주요 질문은 “진로 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활동을 해보고 싶나요?”였다.

학생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외에 실제로 학교 및 교육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교육 담당 교사와 3차례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다. 진로담당 교사와의 첫 번째 면담에서 사용한 주요 질문은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특히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로활동은 무엇이 있나요?”였고, 두 번째 면담에서는 교육청 및 학교 밖의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영재를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였고, 세 번째 면담에서는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였다.

<표 1> 면담 조사 대상 (단위: 명)

면담대상유형	인문사회영재	수과학영재	진로담당교사
인원	4	3	1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국어, 영어 과목에서 학업성취도 수준 A, 1등급의 학생 • 담당과목 교사의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과학 과목에서 학업성취도 수준 A, 1등급의 학생 • 담당과목 교사의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 경력 20년 이상, K중학교 진로교과 및 진로 상담 담당 교사

연구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인문사회 영재학생 4명은 사회, 국어, 영어 과목에서 우수한 학업성취도(성취도 수준 A, 1등급¹⁾)를 보였으며, 각 학생들을 담당하시는 사회, 국어, 영어 교사로부터 논술, 발표 등의 분야에서 탁월함을 보이는 학생으로 추천받는 학생들이다. 수과학 영재는 수학, 과학 과목에서 우수한 학업성취도(성취도 수준 A, 1등급)를 보였으며, 각 학생들을 담당하시는 수학, 과학 교사로부터 탐구활동 및 각종 수행능력에서 탁월함을 보이는 학생으로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다. 그리고 진로담당 교사는 교직 경력이 20년이 넘었고, K 중학교 진로교사로 3년째 근무 중인 교사이다.

1) 학업성취도에서 성취도 수준 A는 100점 만점에서 90점 이상을 의미하고, 1등급은 전체 석차에서 상위 4%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인문사회 영재 18명, 수과학 영재 18명, 일반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넷째 주에서 11월 첫째 주 사이에 이루어졌다. 공교육에서의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인문사회 영재와 다른 분야의 영재 및 일반 학생들의 인식을 비교하고자 면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장래희망’,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 관련 활동’,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의 참여 여부’, ‘학생이 참가한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 활동’,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진로 관련 활동에 참여한 여부’, ‘학생이 참가한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실시한 진로 관련 활동’,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 관련 활동의 적절한 주당 시간’,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 관련 활동 유형’, ‘진로 관련 활동에의 만족도’ 등이다.

설문조사는 인문사회영재, 수과학 영재,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및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2> 설문 조사 대상 (단위: 명)

	인문사회영재	수과학영재	일반 학생
1학년	6	6	9
2학년	6	6	9
3학년	6	6	10
합계	18	1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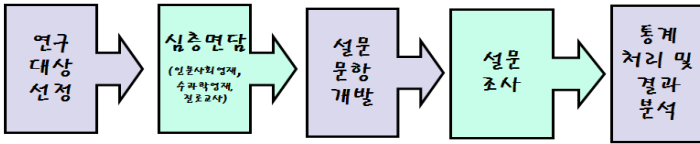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심층 면담은 인문사회 영재 4명, 수과학 영재 3명, 진로담당 교사 1명과 이루어졌고, 조사 기간은 2015년 9월부터 11월이었다. 학생들과 개별 면담 및 집단 면담을 병행하며 다양한 이야기 거리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면담 시간은 대개 20분-40분정도 소요되었다. 인문사회 영재 및 수과학 영재 학생들과는 개별 면담이 3-4회 있었다. 영재학생들이 처음에 자신의 마음을 여는 데는 집단 면담을 활용하였고, 개인의 이력이나 보다 세세한 진로 이야기를 할 때는 개별 면담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진로 담당 교사 1명과는 총 3회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학생 및 교사와의 면담 조사 후, 이를 기반으로 설문문항을 제작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전, pilot 테스트가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 몇 가지 문항을 조정하여 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에서 인문사회영재와 수과학 영재는 면담조사에서 사용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고, 설문조사 대상에서 일반학생들은 학업성취도에서 중위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취수준 B, C, D 에 해당하고, 등급은 3-6등급²⁾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2) 3등급은 상위 11% 초과 -23% 이하에 해당하고, 6등급은 60% 초과 77% 이하에 해당한다.

지를 코딩하여 각 항목에 맞게 빈도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진로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그림 1]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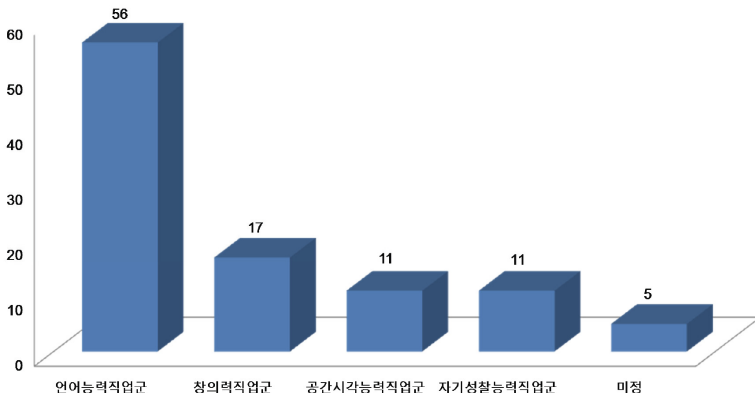
IV. 연구 결과

인문사회 영재를 대상으로 한 진로프로그램의 분석을 위해 학생들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와 더불어 진로 담당교사와의 인터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았고, 인문사회 영재의 진로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분석을 위해 면담 및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수과학 영재 및 일반 학생과의 비교를 하였다. 학생들과의 면담 조사 내용은 학생들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아래의 연구 결과 내용에서 가명을 사용하였다.

1. 인문사회 영재의 진로 희망

인문사회 영재들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하기에 앞서 인문사회 영재들의 장래 희망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그들이 희망하는 장래 희망을 조사함으로써 그러한 직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는 것 또한 인문사회 영재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조사 대상은 K중학교 인문사회 영재 18명이었다.

학생들이 밝힌 장래 희망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1)의 ‘직업적성검사 활용을 위한 커리



[그림 2] 인문사회 영재의 진로 희망 직업군(%)

어넷 직업 사전'의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해 보면, 언어능력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56%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구체적으로 '법조인, 외교관, 교사, 언론인, 통역사, 작가' 등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창의력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17%였고, 구체적인 직업으로는 '셰프, PD, 칼럼니스트' 등이 있었다. 그 외에는 공간시각능력, 자기성찰능력 등에 해당하는 직업군을 희망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파일럿, 범죄 심리학자' 등의 직업을 희망하였다.

인문사회 영재의 절반이 넘는(56%) 학생들이 언어능력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는 '법조인, 외교관, 교사, 언론인, 통역사' 등의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인문사회 영재를 위한 진로프로그램도 이러한 직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인문사회 영재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문사회 영재를 대상으로 한 진로 프로그램 현황

인문사회 영재 학생들을 위한 진로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해 K중학교 진로 상담 교사, 인문사회 영재 학생과 면담을 하였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인문사회 영재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주요 프로그램은 <표 3>과 같다.

<표 3> 인문사회 관련 공교육 진로 프로그램

구분	진로 프로그램
교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 독서 진로 교실 • 교육청의 단위학교 진로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 찾아가는 진로 교실 • 학교로 찾아가는 비전 나눔 특강, 교실로 찾아가는 학생 경제교육 • 진로 캠프
교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동아리(법토론 동아리, 경제 탐구반, 영어 진로 동아리 등) • 방과 후 활동(영어 영재반, 인문사회 영재 멘토링반, 진로 탐구반, 국어 영재반 등) • 직업인 초청특강 진로 탐색 활동 행사 • 교내 진로 직업 탐색 활동 행사 • '진로'교과 활동

진로교육 담당 교사와의 면담 및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해 연구자가 기존에 생각한 것에 비해 학교 및 교육청에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놓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로 담당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I광역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문 독서 진로 캠프', 교육청 지원 '진로 동아리', '진로 캠프' 등이 인문사회 영재들이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었고, 특히 독서 토론 위주로 진행되는 '인문 독서 진로 캠프'는 주로 인문사회 영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청의 프로그램이다. 학교 내에서도 '진로'교과 교육, '인문사회 영재멘토링반, 경제탐구반, 영어 진로 동아리' 등의 방과후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 교육청 및 교육 관련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

교육청 및 학교 밖의 공공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 프로그램과 관련한 면담조사에서 진로 교사가 이야기한 주요 진로 프로그램 내용은 ‘인문독서 진로 캠프’,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진로 교육’, ‘진로 캠프’ 등이었다.

“교육청에서 ‘인문독서 진로 캠프’를 실시하고 ‘이공계 진로 캠프’를 실시해요. 또한 우리 교육청 특색 사업으로 ‘진로 동아리’에 대해 신청 학교에 지원금을 지원하여 진로 동아리의 활성화를 돕고 있고, 시교육청 중심의 ‘진로 캠프’가 실시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매년 특정 직업군에 대해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안내하고 있어요. 시교육청 혁신과에서는 ‘평생학습관’을 두어 ‘찾아가는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중 인문사회 영재에게 가장 잘 맞는 프로그램은 ‘인문독서 진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제대로 따라하려면 그쪽 분야에 관심도 많고 언어적 재능도 많아야 가능해서 주로 인문사회 과목에서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죠. ‘이공계 진로 캠프’는 수학이나 과학 쪽에 뛰어난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어요. 3-4개의 학교들이 묶어서 영재를 대상으로 코어 교실이 실시되고 요즘은 진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로교사, K중학교)

진로 교사와의 면담 및 진로 관련 문서들을 통해 조사한 인문사회 분야의 대표적인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운영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구청과 교육청이 주최하여 이루어지는 「중등 인문독서 진로교실」은 ‘인문학’, ‘고전 인문학’, ‘사회분야’, ‘문화예술’, ‘시사토론’, ‘정치 경제’ 분야에 관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진로 교실의 프로그램 커리큘럼은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직업인의 강의와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그 주제와 관련 있는 체험활동을 하고 동시에 진로코치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다.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 각 분야의 특강과 체험활동(스토리 카드 활용한 과거, 현재, 미래의 나를 찾아보기, 내 인생 10대 뉴스 만들기, ‘자유’, ‘행복’ 주제의 벽지 만들기, 3분 스피치, 롤링 페이퍼, 나의 영상북, 내 인생의 퍼스널 브랜드 만들기, ‘나눔’을 콘텐츠로 하는 나만의 사업 아이디어 구상해 보기, 진로 골든벨, 진로 퍼포먼스 등)으로 짜여 있다. 운영 방법은 토요일 일일 캠프 형식으로 진행하며, 인근의 중학교 3-4개의 학교들이 연합하여 실시하고,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사전 신청 시 진로 관련 특이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참여 프로그램의 분야를 선택 및 배정 할 때 이를 고려한다.

둘째,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인문사회 영역의 진로 동아리 지원프로그램」은 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활동 및 희망 직업과 관련된 탐색 활동을 실시한다. 인문사회 영재들이 희망하는 직업 관련 기관 방문 및 지역사회와 연계 활동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며 지도교사 및 진로 멘토와 함께 활동이 이루어진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진로를 인식하고 탐색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 멘토와 연계하고, 희망 직업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운영 방법은 소규모 그룹의 진로체험활동을 통한 학생 주도적인 활동이 전개되

고, 지도교사 1인과 학생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인문사회 영역과 관련된 진로 동아리 계획서 및 응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정이 되면, 교육청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비롯한 지원을 받는다. 이를 기반으로 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진로 동아리 공모전에 제시한 계획서를 기반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1:1 진로 멘토를 구성해야 하며, 관련 기관,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 체험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육청 및 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진로교실」은 상급 학교에서 하급 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일정기간 ‘찾아가는 진로교실’ 운영에 관한 공문을 게시하고 이를 신청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 교실을 실시한다. 다양한 분야의 상급학교에서 진로 교실에 대한 안내문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 방법은 상급학교에서 ‘찾아가는 진로교실’에 대한 공문을 게시하거나 진로교사 및 3학년 부장에게 연락이 이루어지면,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희망일시와 시간을 적어 보내어 일정을 조율하여 중학교 교실에 찾아와 관련 분야에 대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넷째, 「학교로 찾아가는 비전 나눔 특강」, 「교실로 찾아가는 학생 경제교육」은 평생학습관 주관으로 영역별 ‘학교로 찾아가는~’, ‘교실로 찾아가는~’ 시리즈의 진로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이 직접 참가하여 자신의 꿈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며, 경제 교육과 동시에 경제 분야에 대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운영방법은 평생학습관에서 미리 공문을 게시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교실로 찾아가는~’ 진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신청교 중 일부 학교를 선정하여 진로 교육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진로 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진로캠프」는 토요일 1일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며,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캠프가 진행된다. 진로 캠프의 주요 담당교사는 인근 학교의 진로 담당교사들,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는 학교의 부장 및 보건 교사, 방송 및 진로 동아리 학생 담당 교사 등이 운영 지원을 해 주며, 당일 현장에서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진로에 관한 안내를 함께 해준다. 진로 캠프의 운영은 행사와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진 후, 홀랜드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나의 특별한 역량에 대해 알아보고, 모듈별 활동을 실시하는 순서로 주로 이루어진다. 주요 체험활동으로 직업 카드를 통해 나의 직업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해 보기, 직업의 거인 만들기, 홀랜드 유형별 진로에 대한 모듈 활동, 나의 유형별 성향에 맞는 업무 스타일을 마인드맵화 해보기, 역할극을 통해 미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 인터뷰 등이 있다.

나. 진로 관련 교내 프로그램

진로와 관련한 교내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진로 담당 교사의 주요 응답은 아래와 같다

“저희 학교는 3학년을 대상으로 「진로」 교과가 개설되어 있어서 진로와 관련한 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 I 광역시 모든 중고등 학교에는 진로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진로」 교

과가 개설되어 있어요. 매년 11월과 12월 사이에 학교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직업인 초청 특강 진로 탐색 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진로 전문 강사들이 각반에 들어가서 진로와 관련된 강의, 관련 활동 등을 재미있게 진행합니다.”, “방과후 활동 중에 ‘진로 탐색 반’을 학기 초에 운영했습니다.”

(진로교사, K중학교)

진로와 관련된 교내 프로그램은 「진로」 교과 활동, 인문사회 분야 교내 동아리, 인문사회 영재 관련 방과후 활동, 직업인 초청 특강 및 교내 진로 직업 탐색활동 등이 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K중학교의 교육과정은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교과 수업이 주1회 실시되고 있다. K중학교에서는 ‘중학교 진로와 직업’을 교과서로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고, 진로교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교과서 외에 다양한 진로와 직업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3학년 대상으로 하기에 진학에 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이 함께 이루어지고, 교과 수업 외에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진로 교실’을 찾아가 진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진로」 교과에 대한 지필평가는 실시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는 교양 선택 교과로서 ‘이수/미이수’로 기록이 남는다. 「진로」 교과의 주요 내용은 나의발견, 직업 세계로의 여행, 진로의 탐색, 진로 의사결정 및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마당은 ‘나의 발견’으로, ‘① 삶, 진로, 직업의 의미 ② 나의 특성 탐색 ③ 나의 진로 탐색’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둘째 마당은 ‘직업 세계로의 여행’으로 ‘① 직업 세계의 다양성과 미래의 직업 ② 직업 세계 탐색 ③ 직업에 관한 편견 및 고정 관념의 극복’이라는 주제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셋째 마당은 ‘진로의 탐색’으로 ‘① 중학교 이후의 교육 경로 탐색 ② 잠정적 진로에 관한 정보의 탐색 및 분석 ③ 다양한 직업인의 역할 모델 탐색 ④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위한 조건과 직업윤리’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넷째 마당은 ‘진로 의사결정 및 계획’으로 ‘① 진로 의사결정 ② 나의 희망 진로와 직업 ③ 중학교 이후의 진로 계획 ④ 진로 계획의 실천과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인문사회 영재의 경우는 교과 수업 중간 중간에 이루어지는 적성 검사 및 직업 유형 검사 등을 통해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교과 시간이다.

둘째, 교내 동아리를 통해 학생들은 진로 관련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데, K 중학교의 인문사회 영재들이 주로 참여하는 교내 동아리로는 ‘법토론 동아리, 경제 탐구반, 영어 진로 동아리’ 등이 있다. 그 중 ‘법 토론 동아리’는 법조인이 꿈인 학생 몇 명이 중심이 되어 동아리를 구성한 후, 인문사회 분야 과목 선생님께 지도교사 역할을 부탁하고, 학교에 동아리 개설을 신청하여 만든 동아리이다. 법조인이 꿈이거나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동아리이다. 법과 관련된 토론이 주로 이루어지고, 법원 방문 및 모의재판 등의 활동을 하고, 관련 직업인과의 만남을 갖는 등의 활동을 한다. ‘경제 탐구반’의 경우는 학교 정규 커리큘럼 안에 포함된 ‘동아리’시간에 이루어지는 동아리반으로 경제에 관심이 있는 학

생들로 주로 구성되어 활동을 한다. 경제관련 신문 탐색 및 경제 관련 기관 방문, 경제 관련 토론 등의 활동, 경제 관련 진로 탐색 활동 등이 이루어진다. ‘영어 진로 동아리’는 영어 담당 교사 및 진로교사가 중심이 되어 영어에 탁월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문사회 영재들을 모집하였고, 교육청의 단위학교 진로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에 공모하여 지원금을 받아 활동이 이루어진다.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나의 진로 찾기, 영어 활동 및 내 고향 홍보 영상 제작하기’가 영어 진로 동아리의 주요 프로젝트이다. 상설 교과 동아리로서 월 2회 휴업일에 희망 직업 관련 기관 방문 및 내고장 영어로 알리기 홍보 영상 제작 등의 활동을 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며 진로를 탐색한다.

셋째, 인문사회 영재의 진로와 관련된 방과후 활동이 운영 되는데, K 중학교의 인문사회 영재들이 주로 참여하는 교내 방과후 활동으로는 ‘영어 영재반, 인문사회 영재 멘토링반, 진로 탐구반, 국어 영재반’ 등이다. ‘영어 영재’와 ‘국어 영재’는 각 학년별로 영어, 국어에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학생들이 주로 참가하게 된다. ‘진로 탐구반’은 상위 5%의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 중 방과후 활동 참여를 희망하고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구성된 영재들의 진로 안내를 위한 방과후 활동이다. ‘인문사회 영재 멘토링반’은 인문사회 분야의 영재 학생들 중, 방과후 학교 활동을 희망하고 학업 성취도와 수행 평가가 우수하며 사회교사들에게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주요 구성원이고, 다학년으로 구성되어 상급학년이 하급학년의 멘토 역할을 함께 하며, 진로·진학 지도가 교사-학생, 선후배학생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과후 활동이다.

넷째, 학기말에 ‘직업인 초청특강 진로 탐색 활동 행사 및 교내 진로 직업 탐색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직업인 초청특강 진로 탐색 활동 행사’는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 탐색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인을 초청하여 진로 특강 및 진로 탐색 활동을 하는 행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이 초청되어 실제 직업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특강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특강 후, 진로 탐색 활동이 이루어진다. ‘교내 진로 직업 탐색 활동’은 다중 지능 검사를 통해 진로 직업 적성 탐색 활동을 실시하고, 진로 직업 방향 탐색 활동으로 다중지능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꿈담 쌓기 활동이 이루어진다.

다. 학생들이 참여하였다고 인식한 인문사회 영재의 진로 관련 프로그램

인문사회 영재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 및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학생들은 「진로」, 「사회」 같은 교과를 통해 주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접한다고 하였고, 교과 이외의 다른 프로그램에는 참여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본인의 진로 관련 프로그램인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인문사회 영재 4명과의 인터뷰 결과, 이인문(가명) 학생은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스스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찾아서 학교에서도 주체적으로 범 토론반 동아리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외교부 학생 참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세 명의 학생은 학교나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사회」 교과와 같은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서만 진로 관련된 내용을 듣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인문사회 영재 학생들은 교육청 등의 학교 밖 공교육 기관에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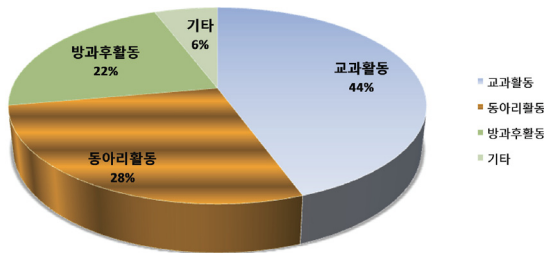
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거의 없었고, 학교에서의 진로 교육활동 참여 경험도 ‘교과 활동’이 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3. 인문사회 영재의 진로 프로그램 인식

가. 인문사회 영재 학생의 진로 프로그램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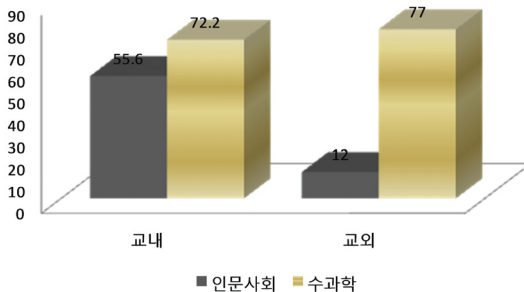
설문 조사 결과, 인문사회 영재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진로 프로그램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5.6% 정도였다. 수과학 영재의 경우는 학교에서의 진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2.2%로, 인문사회 영재에 비해 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인식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카이제곱 검정 결과 그 결과가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인문사회 영재들이 주로 참가하였다고 인식한 교내 진로프로그램 활동 유형은 교과를 통한 진로 교육이 44.4%, 동아리를 통한 활동이 27.8%, 방과후 활동이 22.2% 정도였다.



[그림 3] 인문사회 영재들이 참여하였다고 인식한 진로활동 유형

또한 학교 밖의 교육청 등에서 실시되는 진로교육활동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 인문사회 영재는 12% 정도의 학생들만 경험을 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수치는 일반 학생의 3.6%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지만, 수과학 영재의 77%의 학생들이 참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서는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였다. ($\chi^2=16.20, p<.001$)



[그림 4] 인문사회영재와 수과학영재의 교내외 진로교육활동 경험 여부(%)

인문사회 영재 학생들이 학교 및 교육청 등의 공교육 기관에서 실시한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주요 응답은 아래와 같다.

“저는 수업 시간에 사회선생님이 사회 현상에 대해 이것저것 말씀해 주셨던 것이 제 진로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사회시간 외에는 학교에서 했던 활동 중 제 꿈과 관련된 활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박일문 학생, 중1)

“제 진로란 관련된 거요? 직업 관련된 것인가? 전 솔직히 없어요. ... 저는 꿈도 3학년 되어서야 정했는데. 그런데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 없는데요. 저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학교 수업 말고는 ...아무것도 안했어요. ”

(한이문 학생, 중 3)

“저는 3학년 때 했던 동아리 법 토론 반이 참 좋았어요. 저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 꿈인데요. 법 토론 반에서 법 조항에 대해 서로 토의해 보고, 법원에 가서 관련 분들도 만나 보고 법원도 둘러보고... 그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딱히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외교부에서 한 것도 포함이어요? 저 2학년 때 사회선생님께서 국제기구 관련된 내용 배울 때, 제가 국제 기구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니 외교부 학생 참여 프로그램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외교부에서 중고등 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외교부 견학도 하고 외교관과 이야기도 해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참여했었어요.”

(이인문 학생, 중3)

“수업 시간에 다국적 기업에 관해 배웠던 거요. 그리고 요즘 방과후 수업하는 것이 제 꿈인 CEO에 대해 생각하는데 도움되는 것 같아요. ...이번 축제 때 학생회 임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것저것 주도적인 리더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교육청 리더십 캠프, 진로 캠프... 이런 것은 참가한 적이 없어요.”

(김하문 학생, 중3)

인문사회 영재학생들의 학교 밖 공교육 기관에서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매우 적었고, 대부분 교내에서의 교과 시간을 통해 얻는 진로 관련 정보 및 활동을 학생들이 참여한 진로관련 프로그램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와는 달리 수과학 영재 학생들은 대부분 교내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청 등의 학교 밖 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고, 수과학 관련 경시대회도 다양하여 이를 준비하며 진로에 대한 지식 및 기술도 익히고 관련 경험을 하는 기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과학 영재들의 진로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면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육청에서 실시한 발명 영재 교실에 참가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저희 학교 컴퓨터 교과 시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수업 들으면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방과후 수업 중 ‘프로그래밍 반’이 있는데요. 그 수업도 제 진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어요. 참. 저는 동아리 활동 중에서 ‘과학 탐구반’에 참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과학토론, 실험 같은거 하는 것이 참 좋아요.”

(김수한 학생, 중1)

“저는 게임 개발자가 꿈인데요, 다행히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컴퓨터 그래픽반, 프로그래밍 반 등 관련 방과후활동이 있어서 그것에 계속 참가했었어요. 과학 선생님과 전수영(가명)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과학 탐구반’동아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실험이나 과학 토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코어교실도 저의 수학적인 부족함을 많이 채워 주었구요. 비슷한 관심 분야 친구들과 만나서 진로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인터넷 카페 ‘인디 **’이라는 사이트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데요. 그 카페 회원들과 몇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고 서로 많은 정보도 주고받고 있어요.”

(이수찬 학생, 중3)

“저는 전자공학자가 꿈인데요. 1,2학년 때 교육청과 과학창의재단에서 한 대회에 참여했던 것이 저의 진로와 관련하여 좋은 계기였죠. 1학년 때 수학원리 탐구대회에 참가해서 그... 1학년 때 수학선생님께서 저희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그리고 2학년 때 청소년과학탐구대회를 준비하면서 선생님과 진로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전자통신분야로 준비했구요. 교육청에서 1등해서 전국대회까지 준비하면서 과학 선생님과 관련분야에 대해 많이 이야기 할 수 있었고, 대회 참가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것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전자공학자의 꿈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3학년 때 했던 코어교실은... 그건 좀 별류였구요. 학교에서 전수영(가명) 학생과 함께 했던 동아리 활동은 좋았는데, 활동했던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어요. 저는 다양한 과학 관련 대회에 참가했던 것, 아. 수학도 있었구나.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제 진로 방향을 잡는데도 좋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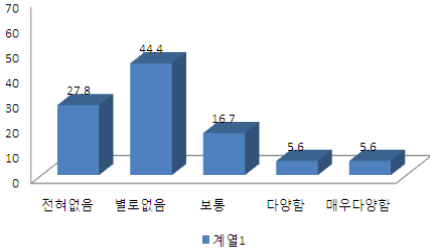
(유수민 학생, 중3)

과학영재 학생 3명의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꿈이 구체적이고, 이와 관련한 학교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고 모두 교육청 관련 활동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수과학 영재 학생들 대부분은 학교에서 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방과후 활동도 지속적으로 개설되고 있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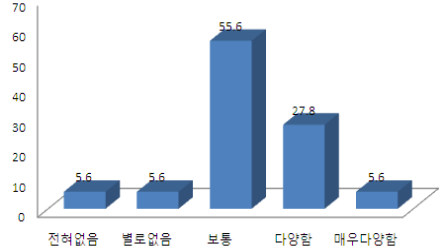
나. 인문사회 영재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 인식

인문사회 영재의 진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 인식은 수과학 영재가 느끼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 인식과 차이가 있었다. K중학교의 인문사회 영재 학생들이 인식하는 진로활동은 ‘교과 수업’, ‘동아리활동’, ‘방과후 활동’의 순이었고, 인문사회 영재들의 학

교에서의 진로교육의 다양성에 대해 72% 정도가 다양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수과학영재들이 진로교육의 다양성에 대해 88% 정도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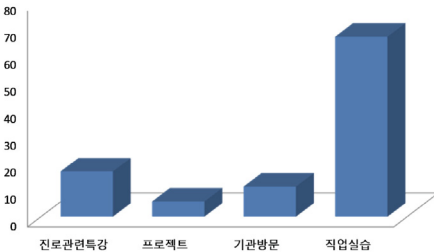
[그림 5] 인문사회영재의 진로교육에 대한 다양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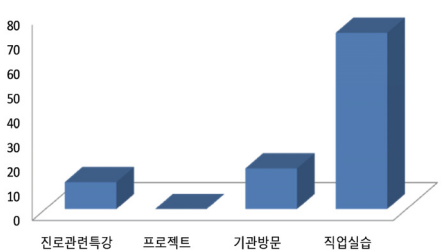
[그림 6] 수과학영재의 진로교육에 대한 다양성 인식(%)

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진로 활동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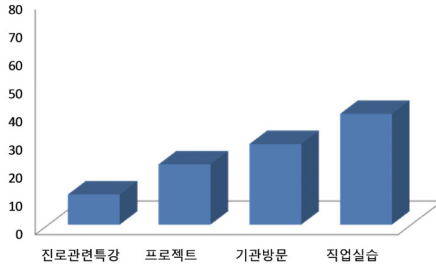
인문사회 영재 학습자와 다른 유형의 영재들, 일반학생들이 원하는 진로 관련 활동 유형은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는 모든 유형에서 학생들이 ‘직업실습’을 하는 진로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설문에 응한 전체 학생들은 ‘직업실습(56.7%)’, ‘기관방문(19.4%)’, ‘교내 프로젝트(11.9%)’, ‘진로관련특강(11.9%)’의 순으로 진로 활동 유형을 선호하였다. 인문사회 영재의 경우는 ‘직업실습(66.7%)’, ‘진로관련 특강(16.7%)’, ‘기관방문(11.1%)’, ‘교내 프로젝트(5.6%)’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수과학 영재의 경우는 ‘직업 실습(72.2%)’, ‘기관방문(16.7%)’, ‘진로관련 특강(11.1%)’의 순으로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일반 학생이 선호하는 진로활동 유형은 ‘직업실습(39.3%)’, ‘기관방문(28.6%)’, ‘교내 프로젝트(21.4%)’, ‘진로 관련 특강(10.7%)’의 순이었다. 인문사회영재, 수과학영재, 일반학생이 모두 공통적으로 ‘직업 실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다. 인문사회 영재, 수과학영재, 일반 학생 모두 ‘직업 실습’ 유형의 진로 활동 유형을 선호하였으나, 다른 유형의 진로 활동에 대해서는 영재유형별로 다르게 응답하였다.



[그림 7] 인문사회 영재가 선호하는 진로활동 유형(%)



[그림 8] 수과학 영재가 선호하는 진로활동 유형(%)



[그림 9] 일반학생이 선호하는 진로활동 유형(%)

V. 논의 및 결론

첫째, 인문사회 영재 학습자들을 위해 공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조사하기에 앞서 인문사회 영재 학습자의 진로 희망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인문사회 영재의 장래 희망을 조사한 후, 이와 관련이 깊은 진로 프로그램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K중학교 인문사회 영재 학생들의 진로 희망은 언어능력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56%로 인문사회 영재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언어 능력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을 희망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법조인, 외교관, 교사, 언론인, 통역사, 작가’ 등의 직업을 희망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인문사회 영재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된다면, 이들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언어 능력 직업군 외에도 창의력 직업군이나 자기성찰 능력 영역 등에 해당하는 다양한 직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었고, 구체적 직업은 ‘PD, 목사님, 범죄 심리학자’ 등이었다. 이러한 직업과 관련된 진로를 안내하는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문사회 영재 학습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직업과 연계하여 인문사회영역 및 학생들의 진로희망과 관련 있는 I광역시의 공교육 관련 기관에서 행해지는 진로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인문 독서 진로 캠프’, 교육청의 단위학교 ‘인문사회 영역 진로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었고, 교내에서는 ‘법토론 동아리, 경제 탐구반, 영어 진로 동아리’ 등의 교내 동아리, ‘인문사회 영재 멘토링반’ 등의 방과후학교 활동, 「진로」 교과 수업 및 교내 진로 직업 탐색 활동 행사 등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인문사회영재 학습자들이 현재 공교육의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대부분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없거나 다양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문사회 영재들의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다양성에 대해 72% 정도가 다양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수과학영재들이 진로교육의 다양성에 대해 88% 정도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학교와 교외 공교육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문사회 분야 진로 관련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으나 인문사회 영재 학생들과의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인문사회 영재들은 그들

의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인식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실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는 차이가 있음에는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 담당교사와의 면담 결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안내될 때, 그 통로가 주로 가정통신문이나 담임교사를 통한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안내를 하거나 다채널을 동시에 활용한 홍보 방법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원인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인문사회영재의 대부분의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만큼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진로교사와의 면담과정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본인들이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고도, 그것이 본인들의 진로와 관련되었다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학생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진로프로그램이 본인 희망과 관련된 진학 관련 내용이나 본인의 희망 직업 관련 내용이 아닐 경우는 진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에 ‘진로’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진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진로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때, 대상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 진학 관련 내용들에 대한 안내가 더 자세히 필요할 것 같고,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알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인문사회영재의 진로 프로그램에의 참여 및 인식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문사회 영재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5.6% 정도였고, 그들이 주로 참가한 활동 유형은 교과를 통한 진로 교육이 44.4%, 동아리를 통한 교과 활동이 27.8%, 방과후 활동이 22.2% 정도였다. 수과학 영재의 경우는 학교에서의 진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2.2%로, 인문사회 영재에 비해 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인식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학교 밖의 교육청 등에서 실시되는 진로교육활동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 인문사회 영재는 12% 정도의 학생들만 경험을 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수치는 수과학 영재들이 77%의 학생들이 참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였다($\chi^2=16.20, p<.001$).

이는 수과학 영재학생들에 비해 학교 밖 공교육 기관에서 실시되는 영재 교육 및 진로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문사회 영재들이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할 때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들을 위한 보다 많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과의 관련성을 많이 생각하는 것을 볼 때, 보다 다양한 분야와 직업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문사회 영재의 경우는 장래 희망이 수과학 영재에 비해 스펙트럼이 더 넓은 경향이 있기에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문사회 영재 학습자와 다른 유형의 영재들, 일반학생들은 모두 ‘직업실습’을 하는 진로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설문에 응한 전체 학생의 56.7%가 ‘직업실습’을 가

장 많이 희망하였다. 직업 실습에 대한 선호는 일반학생에 비해 영재학생의 경우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일반학생의 경우, 39.3%의 학생이 ‘직업 실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에 비해 인문사회 영재의 경우는 66.7%, 수과학 영재의 경우는 72.2%의 학생들이 ‘직업 실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꿈과 끼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유 학기제를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그 현장에서 경험해 보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학교 현장과 관련기관에서는 다시 한 번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진로 프로그램에는 ‘직업 실습’ 활동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학생의 요구와 꿈과 끼를 키우겠다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걸맞지 않다. 따라서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자유학기제가 진정으로 학생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 실습을 할 수 있는 장(場)을 찾아가고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관련자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직업 분야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자유학기제의 모델인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를 알아보기 위해 아일랜드에 다녀왔던 한 중등 교사가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아일랜드의 한 자동차 정비소의 정비사님께 학생들이 직업실습을 위해 찾아오면 번거롭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약간 번거롭더라도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지금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한 효과는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없을 거라고요. 본인도 학생 때 이런 경험을 해 보았기에 지금과 같은 정비사가 되리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서로 약간 불편하더라도 함께 그 불편을 감수하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이 분의 말씀은 자유학기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수가 적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라는 점에서 인문사회영재들의 다양한 시기별 진로에 관한 인식의 차이나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마치며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문사회영재를 위한 진로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준비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한다. 특히 2016년부터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문사회 영재를 위한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각 분야에서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인문사회 영재를 위한 맞춤형 진로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영재 영역별로 세분화된 진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의 차이도 고려한 프로그램 편성이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또한 영재들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한 각 영재 영역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인문사회 영재 및 수과학 영재, 일반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진로 활동 유형은 ‘직업 실습’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진로 교육 프로

그램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어진다. 특히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서 ‘직업실습’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에서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미숙, 정경란 (2008). 인문사회 영재의 정의 및 관별 : 이론적, 실천적 의미, **한국영재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9-36
- 김한영 (2008). **미래 마인드-미래를 성공으로 이끌 다섯 가지 마음 능력**. 서울: 재인.
- 모경환, 박정서, 안보형 (2014). 사회과 영재교육의 동향과 과제, **시민교육연구**, 46(1), 87-119.
- 서예원, 이동화, 문대진, 문미연 (2015). **대한민국의 영재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송인섭, 성은현, 하주현, 문은식, 김누리 (2008). **인문사회 영재교육 교수학습 자료(II)**. 수탁연구. CR2008-4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신윤호, 오만록 (2005). **생활지도와 진로개발**, 서울: 교육과학사.
- 옥현진, 고진아 (2015). 초등 인문사회 영재 학습자 특성 분석. **독서연구**, 34, 171-198.
- 윤경미, 유순화 (2008). 과학영재, 인문사회 영재, 일반 중학생의 다중지능 특성. **청소년학연구**, 15(5), 287-313.
- 이경숙 (2009). 인문학적 창의성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논총**, 24, 5-26.
- 이명자 (2013). **초등 인문사회영재를 위한 PBL(문제중심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미순 (2012). 음악영재의 완벽주의 및 스트레스가 합리적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영재교육연구**, 22(2), 221-241.
- 이정화, 류성림 (2013). 초등 수학 영재와 일반 학생의 자기 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비교. **E-수학교육 논문집**, 27(1), 63-80.
- 전명남, 신수정, 강현석, 조철기 (2008). **인문사회 영재교육과정**. 수탁연구 CR2008-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커리어넷 직업사전**.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lark, B. (2008). *Growing up gifted: Developing the potential of children at home and at school(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rson Prentice Hall.
- Davis, G. A., & Rimm, S. B. (2004).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5th ed.)*. Boston: Allyn & Bacon.
- Ford, D. Y. (2003). Desegregating gifted education. In J. Forland(Ed.), *Rethinking gifted education* (pp.143-158).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Gagne, F. (1991). Toward a differentiated model of giftedness and talent. In N. Colongelo, & G. Davis(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Boston: Bacon.
- Gardner, H. (1983).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in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 Green, H. J. (2002). *Recurring themes in career counselling of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 Newsletter(Spring)
- Kerr, B. A. (1981). *Career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ERIC Clearinghouse on Adult,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 Abstract =

Learners' Perception on Career Education Programs in the Public Education for Gifted Studen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Eui-joo Shin

Konkuk University

Sukun Jin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reviewed the current state of career education programs, especially for gifted studen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of South Korea, and investigated how those gifted students perceive on career education programs for them. Gifted students and their career education teachers were surveyed, and related documents were also widely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1) 56% of gifted studen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wanted to pursue careers related to language abilities, and that (2) gifted studen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find less opportunities, compared to gifted students in math and science, to participate in career education programs related to their talent areas.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be considered when career education programs are designed and implemented for gifted students in the area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Key Words: Gifted Education, The Gifted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areer Education

1차 원고접수: 2016년 2월 16일
수정원고접수: 2016년 3월 25일
최종게재결정: 2016년 3월 29일